

##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의 아동 이해와 교회에서의 기독교 상담에 관한 고찰

변영인\*

### 국문초록

2000년대 한국의 국적법 개정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오늘날 급변하는 자본 시장의 경쟁은 한국의 경제를 급부상 시켰으며 이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는 외국인 노동 인구의 유입이 불가피했고 또한 농촌 청년의 결혼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급증현상이 더욱 더 빠르게 진행 되었다. 이제 한국 사회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의 다문화 가정을 형성함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이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와 교회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함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동의 환경에서 파생되는 가족갈등,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왜곡으로 인한 그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심각성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이 처해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한국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의 심리적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 부적응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서의 기독교 실천적 조력인 상담을 통해 그들의 학교 부적응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를 피력할 것이다.

**중심단어** : 다문화 가정, 기독교 상담, 학교 부적응, 자아 탄력성, 사회적지지

• 논문 투고일: 2012년 4월 10일

• 논문 수정일: 2012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5일

\*동서대학교

www.kci.go.kr

## I. 여는 글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기 시작해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그 자녀들이 학동기를 맞게 되었고, 그간의 가족 갈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생활에서의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의 문제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의 취학자녀들 중 11.5%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 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겪는 어려움 중 크게 주목되는 것이 학교적응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중학교의 경우 9.9배, 고등학교는 8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공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조선일보, 2008) 새터민 가정 자녀들의 경우 학교 중도 탈락률은 2008년 현재 일반학생의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것을 바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심각한 적응문제라고 본다. 설혹 등교를 하더라도 취약한 심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한편, 다문화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생활전반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별이나 따돌림이 있어도 크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sup>3)</sup>

이처럼 동일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적응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자아탄력성 개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아동이해와 교회에서의 기독교상담에 관하여 고찰할 것이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 또한

---

1) 박인숙, “탈북학생 이해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강사요원연수, 2010.: 40.

2) 이은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제5회이주노동자 정책세미나, 2004.: 114.

3) 노충래·홍진주,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제9호 (2006): 117.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에 그 뜻을 보다 명료히 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이란 한 사람이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sup>4)</sup>.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또래나 가족,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존중, 인정 및 물질적인 도움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인 상관을 갖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부적응을 도울 수 있는바 즉 사회적 지지는 긴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는 자아 탄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그렇다면 기독교적 다양한 조력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 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므로 자아탄력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장 환경의 실태, 그에 파생되는 학교생활의 문제,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며, 한국의 지역 교회들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지지 즉 아동의 자아 탄력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서의 기독교 상담에 대한 고찰 등을 다루고자 한다.

4) 구자은,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0), 84.

5) 이수연,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 제15권 1호 (2008): 81-113.

6) 변은주·심혜숙,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가족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11권 4호 (2010): 1761.

## II. 펴는 글

### 1.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성장 환경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에서 적응성을 돕기 위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성장 환경을 살펴봄으로 그들의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 1)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체성 혼란

금명자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인종유형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국가소속감은 다르게 지각될 수 있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자신을 '한국인' 및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아시아계 어머니를 둔 청소년 60% 이상이 스스로를 '한국인' 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한국인' 이라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정체감에 있어서는 혼란감을 느끼며, 어머니(아버지)의 출신국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화롭지 못한 이중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sup>7)</sup>.

#### 2) 다문화 가정의 부부갈등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부간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자녀양육 태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반 한국인 가정보다 부부갈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의 총 이혼 건수 중 외국인 이혼율은 7.1%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40.6%의 증가율을 보여, 외국인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7) 금명자·이영선·김수지·손재환·이현숙, "다문화 가정 혼혈 청소년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제17호(2009): 87.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파른 이혼 증가율에 의해 머지않아 한부모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사회적 혼란으로 부각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부부 갈등은 배우자의 상호간의 성격 문제 갈등과 경제적 문제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경제문제, 역할과 역할기대의 불일치, 일방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강요,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의 부부간 인격적 미숙함, 한국의 사회적 편견, 지나친 연령차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유발된다.<sup>9)</sup>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국제결혼으로 인해 본국에 있는 원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인 남편 역시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취약 층에 해당하므로 인해 이들의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는 부부갈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

#### (1)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

우선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가족 간 양육 방식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국인 어머니가 자라온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가정환경, 교육관, 가치관, 신념 등이 한국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 방법, 자녀에 대한 기대 등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양육 방식, 태도 등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할머니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어머니가 정해 놓은 양육 규칙이 할머니의 규칙과 달라 양육 받는 아동의 정서적 혼돈이나 이로 인한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갈등이 아동

8) 곽희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문화 가족을 세우는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0), 28.

9) 박경동, “다문화 가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의 광주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7), 12-14.

에게 심리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일반 한국인 가정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의 문화와 자녀양육 관행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할머니가 양육에 참여한다면 어머니가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주 양육자가 할머니 이든 어머니 이든 가족 간 양육상의 갈등은 아동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인지,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의 학교 부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up>10)</sup>

#### (2)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현황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내유입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이 남성이 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가 평등한 관계보다는 주종관계의 성격을 띠게 된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국적을 획득하기까지 여성 결혼이민자는 2년 동안 체류 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해야만 하므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이 이미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속에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절대 빈곤 문제가 그 자녀들의 성장 환경으로써의 문제가 크다.

마지막으로 이민 여성이 일자리를 위해 국제결혼으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족 해체와 심리적 충격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이 교육적 환경으로의 일차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라는 의미로 보았을 때 자녀에게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

10) D. W. Sue, P. J. Arredondo, & R. J. McDavis,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 (1992): 477-486.

11) 신혜정,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7), 17.

## (3) 다문화 가정의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관계 문제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서로 다른 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중문화의 성격을 지닌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의 문제는 성장 과정 중에 겪어야 하는 갈등과 혼돈, 언어소통, 자녀교육의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의 문화차이 현상은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와 문화 사이의 갈등, 차별이나 편견 등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도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sup>12)</sup>

그래서 인종간의 갈등, 종교적 갈등, 즉 다양한 문화적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배움이 없이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에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sup>13)</sup>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국제결혼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편견,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고통은 물론 가정 해체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다양한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는 물론이며 국적 취득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자신은 정작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4)</sup>

대부분의 한국가족 정서에서 한국남성은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여성이

12) 장신근, “평화교육으로서의 다문화 기독교교육, 공교회적 접근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24.

13) 최유진,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47.

14) 박정화, “한국의 다인종 사회 진입에 따른 정치적 함의”(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34-35.

순종형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주민 여성은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남편의 고정 관념과 원부모와의 관계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및 추종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주민 여성은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통제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편과 상호불신 등이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특히 한국의 민족주의 사상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에 기인하여 여성에 대해 배제하고 차별하는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한국인의 태도에 이중적인 구조가 존재해 왔는데, 서구문명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후진국에 대해서는 우월의식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또는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sup>16)</sup> 이러한 가족 갈등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은 가정의 교육적 배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된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공식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초등학교 시기이다. 아울러 이러한 초등학교 시기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는 아동의 학교적응과 교육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는 심각한 교육환경 문제로 심각한 적응장애 문제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 된다.

## 2. 다문화 가정 아동교육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가정적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그 아동들은 심각한 교육적 문제를 안은 채 학교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살펴보

---

15)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4), 34-36.

16)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16-19.

았다. 이제 다문화 가정 아동 교육의 문제점을 학업 영역, 대인관계영역, 심리적 영역 등을 통해 가장 아동교육의 문제점 중에 그 심각성이 큰 아동들의 학교 부적응의 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업 영역

부모의 조력 부족 : 아동의 공식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초등학교 시기이며 이 시기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는 아동의 학교적응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학부모인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습득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국어말의 구사여부와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시기에 초등학교 아동의 사고력, 사회성, 자아개념 등 아동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언어는 사고의 수단으로 특정 사물을 표현하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새로운 자극을 기존의 것과 비교해서 차이를 발견하고, 개념을 분화해 나가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처럼 언어를 통해 개념을 습득하고 확산해 나가며 아동의 사고가 확장되고, 지능이 발달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따라 언어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경우가 심각하다.<sup>17)</sup>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의 학업이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지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서의 부모의 조력 역할을 잘 수행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 특히 저학년 시기는 기본적인 학습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매일 일과의 학교 과제를 수행하는 것, 제시간에 일어나서 학교에 등교하는 일, 준비물과 시간표 챙기기 등을 규칙적으로 수행해서 습관화해야 한다. 이때 부모가 알림장을 확인하고, 아동의 학업, 교우관계, 학교규

17) 손민정, “다문화 가정의 초중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향상 프로그램 구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7), 39-42.

칙을 지키는 일 등에서 어려움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비단 단순히 학습의 습관만이 아니라, 향후 일생 전반에의 자존감, 자신감, 학업동기 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18)</sup>. 준비물 관리하기 등은 학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한 조력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역시 그 부모의 역할에 조력 역할을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부모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 교사들에게도 역부족의 한계로 인해 아동 역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sup>19)</sup>

## 2) 대인관계 영역

### (1) 부모 자녀간의 관계

사회적인 존재인 아동은 부모나 교사, 특히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삶의 즐거움과 슬픔, 어려움을 나누면서 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에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갖고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세대 간의 갈등과 문화 간의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애착형성에 어려움이 생긴다.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경우 혹은 어머니로부터 부정적 자극을 받은 경우 아동은 적절한 애착형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sup>20)</sup>.

둘째, 가족의 위계가 무너질 수 있다. 아동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과

18) 박수정·최연실, “집단미술 치료 Program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10권 4호(2009): 157-159.

19) 경북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자보고서, 2008.: 72.

20) 변영인, “아동발달 심리”, 미간행물, 2010.: 87.

정에서 부모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부모입장에서 아동의 질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없어 아동의 학업지도를 수월하게 하지 못하면 아동은 부모를 무시하게 된다. 부모는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녀에게 다른 방식(역기능적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 부모의 훈육역할이 손상되고 가족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셋째, 부모와 아동은 각각 자신의 정체감으로 가족 내의 다문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한국인, 외국인, 혼혈인이라는 정체감으로 한 가족을 구성하게 된다.<sup>21)</sup> 이렇듯 심각한 상호 역기능적 가족 형성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가족 내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경우 부부 간의 갈등과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가정 또한 부모는 본국의 문화정체감을 주장하는 반면 아동은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선호하게 된다. 상이한 문화정체감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타협보다는 갈등이 심화되기 쉽다. 둘째, 국제결혼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족위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sup>22)</sup>

## (2) 또래와의 갈등

일반 부모들이 다문화 가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자녀들도 부모의 태도와 가치를 받아들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차별하게 된다. 타인과 어떤 관계를 경험하는지에 따라 아동들은 자신을 판단한다. 상대방이 나를 수용하면, 자신은 건전한 자신감으로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

21) 백승주·이동호·최건용, 『다문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학지사, 2010), 182.

22) 변은주·심혜숙,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가족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11권 4호 (2010): 1734.

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을 경우 관계상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23)</sup>

### 3) 심리적 영역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다문화 아동들의 심리적 고충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생 시기는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자아의 개념을 형성하며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또한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생활하게 되며,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게 된다.

심리적 발달이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sup>24)</sup>.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곤란은 정체감 혼란,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심리적 외상, 문제행동 표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25)</sup>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매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올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경우는 아동의 경험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각자 상이한 외모로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노

---

23)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no. 1 (1997): 5-68.

24) 김경자,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 적응"(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2008).

25) Leroy G. Baruth & M. Lee Manning,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Prentic Hall, 2007), 48.

출되어 심한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국적으로 볼 때도 이들은 분명 한국인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의 시선들이 그들을 한국인으로 보아주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군의 자손이며 단 일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깊게 갖고 있고, 한국인은 모름지기 이리이러하게 생겨야 한다는 선입관을 뿌리 깊게 갖고 있다. 따라서 이국적인 외모의 다문화 한국인은 낯선 존재인 것이다<sup>26)</sup>.

스스로는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보아 주지 않는 현실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정체감과 자존감에 혼란스러워 한다. 스스로 규정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한국인)와 타인이 바라보는 이미지(외국인) 사이에서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혼란스러움에 고통스러워한다.<sup>27)</sup>

#### (1) 낮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좋아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을 수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바탕이 된다. 그렇다면, 아동이 처음 접하는 사회적 환경인 학교에서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고 길러지는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에게 학교는 미지의 공간이다.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아이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지만, 방어적이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에게는 괴로운 공간이 된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동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작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귀인하지 않고, 변화 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귀인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sup>28)</sup> 또한, 그것이 있어야, 인생에서 실패 경험에도 불구

26) 백승주·이동호·최건용, 『다문화교육 멘토링프로그램』, 159.

27) 임경혜, “국제 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16-19.

28) 황매향·고홍월,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 (서울: 학지사, 2010), 97.

하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학교 경험을 통해 오히려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자신을 신뢰하고, 긍정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신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고 자신을 비하 하며 또래와 이질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게 된다.<sup>29)</sup> 이미 유아기 때 언어발달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이 있으며 학교에서 일반아동의 편견과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일반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 정서 장애

다문화 가정에서 이미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 아동은 흔히 만성적 긴장감으로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체 체류자의 30%가 극도의 무력감, 우울증, 대인기피증, 정신충동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 또한 교회의 다양한 조력 및 상담 과정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위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자(35%), 모국 친구(30%), 가족이나 친척(19%) 등이고 상담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결혼이주 여성이 15%나 되었다<sup>30)</sup>.

이로써 상담의 절실성과 필요가 극명히 요구된다고 보겠다. 부족한 학습을 도우미를 통해서 도울 것을 시도하였으나 약70%의 아동들이 학습 활동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학습부진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가정에서 아동들이 어머니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

29) 변은주·심혜숙,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가족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1761.

30)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영역보고서, 2006. : 84.

고 산만하게 자라온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낮은 정서 장애의 수반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 3.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향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

이제 위에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회의 기독교 상담적 및 교육적, 조력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교회의 방법 구축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은 교회에서 이루어졌을 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교회에서의 방법을 구축할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 교회들의 공동의 책무 공유하기.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 사회의 목표를 지역교회들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는 건전한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교회가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이주민을 우리 사회에 통합하도록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적응교육을 시행하는 동화주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아닌 ‘다문화 공생’을 목표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다문화 공생의 주 내용이며 이것이 다문화 사회라는 지향점과 보다 일치하는 것이다<sup>31)</sup>. 거기

31) 강하니, “다문화 가정 아동 사회 선교를 위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9), 47.

에 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이외에 지역교회들이 이와 같은 책무를 함께 공유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문화 아동 교육의 정보의 제공, 한국의 다문화 아동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의 정의적 심리적 프로그램 실시, 문화적 관점에서의 주민의 교육과 추진체계의 정비 등 설정한다든지, 보다 중립적이고 다문화의 성격을 반영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국적, 민족 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배려 규정을 두는 점 등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sup>32)</sup>. 이렇듯 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적 도움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기독교 선교와 전도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기독교상담의 교회공동체의 활용

기독교 상담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의 그 어느 조직체보다도 다양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존의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각 남녀 전도회, 각 교육기관, 유아 유치 아동반, 초, 중, 고등부조직을 통해 초등아동과 대학부를 활용한 멘토링 일대일 교육이 그것이다. 또한 교회에서는 친교, 개인의 일상에 관한 생활지도 방과 후 학교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교제와 친교를 통해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program을 실시하며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sup>33)</sup>.

또한 본 연구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상담적 노력을 통해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높이고 우리(We-feeling)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도록 활용하여 교육 상담, 일상생활에서의 상담을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가족관계 회복 등 즉 현실적 문제인 의사소통교육, 자아분화훈련, 남녀 차이 이해 등 문화차이 이해, 갈등해결, 등을 다루어 결혼이주자의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고 본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및 기독교 상담적

32) 광희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문화 가족을 세우는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87.

33) 강하니, “다문화 가정 아동 사회 선교를 위한 연구”, 50.

접근 등의 교회적 조력에서 매우 유용하고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독교회 공동체 정신은 이미 성경적 기초에 근거한 사랑의 철학과 이념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에 자녀라는 의식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다양한 상담과 조력적 방법은 이들에게 더 없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 2)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적 촉진을 위한 교회의 기독교상담 및 교육의 목표설정

### (1)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상담 실시

또한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나 자녀 모두가 한국어 습득의 문제는 가정 우선적인 문제이고,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해도 언어습득 문제를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지적하는 바 한국어능력 향상은 그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이러한 고충을 상담해주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결혼이민자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이 필요하다.<sup>34)</sup>

교회의 상담실, 사회봉사국 등에서 가지적인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꾸준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유익한 수단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나 시부모 등 결혼이민자의 가족들도 그들의 한국어교육 참여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남편과 시부모에게는 부모교육, 가족 생활교육 등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변의 조력이 개입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실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귀화자 신분의 결혼이민자들을 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것도 조력의 효과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예컨대 본

34) 옥천 한국어 학당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II, 2006.

래 불교도 귀화자 이었으나 한국 이주 후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이 통역과 상담으로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더욱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2)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의 교육 문화와 환경 익히기를 위한 기독교상담 체계 구축

본 연구자는 또한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사전지식이 취약하며 아울러 한국의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교육열에 대한 배경과 정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의 학교 교육에 취약하다. 이리므로 교회 교육에서 부모교육과 한국의 교육 환경 이해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을 도와줌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부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므로 사료된다.

(3)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지원

각 지역 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바 다양한 상담의 심층적 조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일환으로 심리적 지원을 줌으로 그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자녀들의 자아를 건강하게 하는 자아탄력성 고취가 필요하다. 이제 다음과 같이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자아탄력성의 이해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인 ‘탄력성’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키고,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개인의 성격적 측면이다.<sup>35)</sup> 자아탄력

---

35) J. H. Block &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ed. W. A. Collins (Hillsdale, NJ.: Erlbaum, 1980): 39-101.

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36)</sup>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을 경우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신체화 증상을 보이게 되며, 우울이나 불안 등이 동반되어 학교적응에 더욱 심한 어려움을 보인다.<sup>37)</sup>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개인 내적인 변인이었다.

## ②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내적 심리 변인이었다면 개인의 환경적 변인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38)</sup> 환경적인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를 감소시켜주는 유용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sup>39)</sup>. 사회적 지지란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랑, 인정, 정보, 물질적인 것이 포함된다. 오늘날 현재에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본 연구자는 이런 사회적 의지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랑과 배려를 기초로 한 교회 교육적 조력을 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즉 교회의 다양한 조력적 프로그램을 통한 지지가 다문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볼 때 현재 기독교 상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상담실 운영, 가정 사역, 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등을 다문화 가정을 위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때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36) 구자은,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0), 48.

37) 신윤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19.

38) 변은주·심혜숙,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가족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1760.

39) H. B. Kaplan, C. Robbins, & S. S. Martin,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983): 93-115.

정현영은 가족지지 높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 적응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한 결과<sup>40)</sup>는 친구나 교사의 지지 보다는 가족지지의 영향을 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 부분 또한 기독교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증가와 사회적 지지를 위해 기독교 상담에서의 도움을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4) 교회공동체에서의 문화와 다문화 공동의 이해 고취를 위한 상담 제공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른 사회적 배려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취지에서 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실천적 대안과 조력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방안'은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학기 초에 자녀의 학교로부터 학부모 출신국가의 언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로 만들어진 학교생활 안내 책자를 제공 받도록 돕는 일도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회에서 상담 및 방과 후 아동지도 교실을 개설하여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실을 활용하도록 돕는 방안'도 유익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의 교회와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 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 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 풍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할 때에는 결혼이민자들이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소통을 통한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위한 유의미한 배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sup>41)</sup>

40) 정현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06), 19.

41) 성동현, "여성 결혼 이민자의 가족 안정성과 사회 적응 욕천군 베트남 여성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7), 29.

## (5)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 및 세계인으로서의 높은 자존감 고취

본 연구자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단지 문제만 가진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들은 어린 시절부터 적어도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된다.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국가 배경에서 성장했으므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고, 언어습득의 결정적인 시기에 두 가지 언어를 함께 접할 경우,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것도 가능한 입장이 라는 긍정적 견해로도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아동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접하고, 부모를 통해 모국의 문화를 익히게 된다. 혹은 모국의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 한국에 오기도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 향후 이들이 성장하여 국가간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들의 자원을 지렛대 삼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국제화 시대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미래조망적인 시각이 필요하다.<sup>42)</sup>

그러므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국제적 안목과 높은 자존감 고취를 위한 의식전환의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바 이것은 다문화 가정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회는 이 점을 인식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와 아동들에게 세계시민 및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성에 대한 인식의 고취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므로, 기독교적 의식 고취 및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또한 교회 내 상담실에서 상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42) 황매향·고홍월,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 82.

### III. 닫는 글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실태와 상황을 연구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육 및 학교생활의 부적응 상황을 연구 하였으며, 아동의 학업적 심리적 영역의 어려움을 통해 이로 인한 학교 부적응 상태를 살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자는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동 상담을 위해 교회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기독교 상담을 통한 자아탄력성을 고취시킴이 요구됨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지 및 지역교회들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식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바 자존감, 정체성, 및 학교와 사회적 부적응을 형성하기 쉽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아동은 성장 후 심각한 적응의 문제와 또한 사회적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교회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열린 마음으로 개방하여 포용해서 다양한 상담적 조력을 통해 사회적 지지 즉 큰 가족적 지지로 도움을 주도록 도와야 한다. 마치 이것은 한국의 재미교포들이 한국에서는 각자의 다양한 종교를 가졌었더라도, 외로운 타지에서서의 적응을 위해 한인교회의 상담적 도움을 입거나 단순한 외로움 달래기 등으로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는 과정에서 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된 것과 유사한 경우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에서 상담과정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 큰 도움과 유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교회들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간다면 다문화 아동들도 교회에서의 상담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학교 적응과, 건강한 한국인으로의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고취를 위해서 기독교적 상담을 통해 성경적 자아상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려

위 다른 문화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상담을 통하여 위에 언급한 기독교적 자아상 회복과 아울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독교 상담을 통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 참고문헌 】

- 김경자.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 적응”.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2008.
- 강하니. “다문화 가정 아동 사회 선교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9.
- 경북 상주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방문 지도자 보고서, 2008.
- 곽희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문화 가족을 세우는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0.
- 구자은.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0.
- 금명자·이영선·김수지·손재환·이현숙. “다문화 가정 혼혈 청소년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제17호(2009): 87.
- 노충래·홍진주.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제9호 (2006): 117.
- 박경동. “다문화 가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7.
- 박수정·최연실. “집단미술 치료 Program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10권 4호 (2009): 157-159.
- 박인숙. “탈북학생 이해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강사요원연수, 2010.
- 박정화. “한국의 다인종 사회 진입에 따른 정치적 함의-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8.
- 변은주·심혜숙.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가족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11권 4호 (2010): 1753-1765.
- 변영인. “아동발달 심리”. 미간행물, 2010.
- 백승주·이동호·최건용. 「다문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2010.
-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연구영역 보고서, 2006.

- 성동현. “여성 결혼 이민자의 가족 안정성과 사회 적응”.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2007.
- 신윤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신혜정.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7.
- 손민정. “다문화가정의 초중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향상 프로그램 구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7.
- 이수연.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15권 1호 (2008): 81-113.
-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4.
- 장신근. “평화교육으로서의 다문화 기독교교육: 공교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정현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06.
- 최유진.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황매향·고홍월.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 서울: 학지사, 2010.
- Baruth, L. G. & H. L. Manning.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Lifespan Perspective*. NewYork: Prentic Hall, 2007.
-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no. 1 (1997): 5-68.
- Block, J. H. &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ed. W. A. Collons. Hillsdale, NJ.: Erlbaum, 1980.
- Kaplan, H. B., C. Robbins, & S. S. Martin.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983): 93-115.

Sue, D. W., P. J. Arredondo, & R. J. McDavis.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 (1992): 477-486.

【 Abstract 】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of Korea and Christian Counseling in Church

**Young-In Byun**

Dongseo University

About 10 years ago, Korean society need the foreigner's helping. There are many kinds of the problem of agricultural men's marriage and decrease of labor population in Korea society. This is the reason: now a days Korea become the multicultural society with alliens people. Gradually, Korean society has the severe problems as the multicultural society. Moreover,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have many kinds of problems in their school. Among the problem of them, the worst problem is the school maladjustment. We must understand their background of family life and their psychological needs. Furthermore, it is very important to help their problem in their school. Within the Christian counseling, multicultural family will receive the helping. This study will give the understanding about their psychological needs, state and condition of them. Also this study will give explanation about helping with the christian counseling in the church. On behalf of helping to solve the school maladjustment problem for the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church will be able to take charge the role as the family supports to get their ego-resilience with christian counseling. Therefore, many kind of helping with christian counseling in the church will be able to offer the ego-resilience as the family support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Christian counseling, school maladjustment, ego resilience, social support